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7년 5월 7일 (제897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날아보자!

요즘 공사 차 기도원에 내려가 지낸다. 2주 전에 기도원 성전 위에 있는 뒷동산에 닭 수십 마리를 들여놓았다. 이를 본 어느 타교단 목사가 기러기 세 마리를 사들고 들어왔다. 나에게 은혜를 갚는다면서. 그런데 이 기러기가 날 줄을 모른다. 그저 뒤뚱뒤뚱 걸어 다닐 뿐이다. 본시 기러기는 따뜻한 곳과 먹이를 찾아 4만km를 날 정도로 비행실력이 대단하다. 어린 시절에 기러기가 V자를 그리며 창공을 나는 걸 자주 봤다. 그런데 기도원에 들어온 기러기는 아예 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가뭄길러서 그렇다. 철조망 안에 가뭄길러서 자신이 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조차 모르고, 닭과 똑같이 주는 먹이나 쪼며 비대한 몸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이 기러기를 보고 생각이 깊었다. 혹시 이것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이 기러기처럼 사장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마귀의 손에 길들여져 우리에게 잡재된 가능성조차 모르고 사는 것은 아닐까? 기러기를 풀어놔도 날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가 왔음에도 스스로 착고에 차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가 “넌 할 수 있어, 너에겐 불가능이 없어.”라고 외치지만, 팔자와 주제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뒤뚱거리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울타리 안의 기러기 같은 생활에서 탈피하는 길은 기러기가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아는 것이듯, 우리도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당신은 누구인가?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이제 하늘을 훨훨 날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믿음은 행동으로 말한다

지난해 말부터 숨 가쁘게 진행돼온 헌정 과정을 통해 이제 곧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복잡한 이야기할 것 없이 이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왔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기 때문이다.

믿음은 그냥 말로 ‘믿습니다’ 해서 확증되는 게 아니다. 믿음은 행함이 수반되어야 완성되는 것이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행동은 다르게 해버린다면 이는 결코 믿음이라 할 수 없다. 야고보 사도 역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내 형제

곱히 살펴보고 현명한 선택을 통하여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행동하는 믿음이라 생각한다.

국가 지도자를 세우고 폐하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일이다. 아마도 그동안의 여러 대선을 경험하면서 충분히 느꼈을 것이다. 유력 대선주자들이 낙마하는 사건들이 결코 길지 않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도 많지 않았던가.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이든 하늘이 내린다고 말하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신성한 투표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적극 동참해야 하는 것이다.

있다고 하지 않던가.

악한 마귀는 인본주의를 앞세워 교회를 핍박하고 파괴하려 몸부림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편안한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이런 국가적 선택의 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권리가 훼손되고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결코 저절로 담보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다. 악은 성실하다. 악은 대충이 없다. 어떻게 하면 우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믿음으로 이번 대선에 모두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들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혹은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약2:14~26).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내일 모레면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기도했다고 하면서, 또한 기도한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하면서 국민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진실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 되고 말 것이다. 기도한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물이 누구인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딤후2:1~2). 각 대선주자들의 정책이 어떠한지 꼼꼼하게 살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교회의 존립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지는 않을지 점검해야 한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차별금지 법안 등이 실제로 교회에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지 잘 알아야 한다. 인권을 앞세운 법안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동성결혼의 주례를 거부한 목회자나 동성의 혼인신고를 거부한 공무원이 체포 구금되는 일들이 미국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리 믿는 자들을 멸망으로 몰아넣을까 끊임없이 확책하며 최선을 다해 물고 늘어진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이라는 예수 이름의 가공할 첨단무기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첨단무기만 갖고 있으면 무엇 하겠나? 쓸 줄도 모르고, 쓰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데 말이다. 그래서 지식을 함양하고 날이 서도록 갈고 닦아 빛을 발해야 한다. 이것이 행동하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가 아닐까.

이번 대선에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시119:163~165)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자가 되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못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거짓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히6:18).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을 뿐 아니라 또한 거짓말을 하는 자를 싫어하고 미워하십니다. “여호와와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 질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잠6:16~19).

2005년으로 기억됩니다. 세계목회자영성세미나의 첫 시간, 세계 30여 개국에서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저는 “거짓말을 죽여서 이 기도원에 묻고 가라.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 목회에, 인생에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강의 후 통성기도 시간에 많은 목회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거짓된 삶을 회개하고 청산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때 참석했던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면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거짓을 기도원에 묻고 와서 진실 되게 사니까 목회도 잘 되고, 가정도 평화롭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요. 실제 그들은 예전보다 교회가 많이 성장했고, 사업가들도 성공한 것을 많이 봅니다. 당연하지요. 인생에 장애물이 없어졌으니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진실은 어디서나 통하는 만국 공통의 화폐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진실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인격화하면 마귀일진대(요 8:44),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거짓된 삶을 사는 자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거짓된 자를 대적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렘13:8). 그래서 거짓말을 한 첫 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내치셨고(창3), 거짓말로 베드로를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치셨던 것입니다(행 5:1~11). 이것이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너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시 119:163~165)라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인생의 답이요, 성공의 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된 자를 쓰십니다.

금 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쓸 수 없지요. 제가 전국과 세계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서 오는 줄 압니까? 제가 인물이 잘나서요? 제 가문이요? 아닙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한없이, 원 없이 쓰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제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한 번 눈 감고 거짓말하면 편한 길로 갈 수 있을 때 유혹도 느낍니다. 그러나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하며 돌이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진실되

려 고 합니다. 그런 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에 능

력을 더하사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고 맡기시는 것입니다. 당신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사람 앞에 진실되게 살면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사 당신에게 능력을 입히실 것입니다. 진실은 진실된 자에게만 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실된 자가 되십시오. 진실은 빛과 같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모든 것이 장애물이지만, 빛이 들어오면 장애물이 오히려 디딤돌이 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가 비록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살았지만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 진실했기에 옥에 갇힌 것마저 디딤돌이 되어 노예에서 일약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량품은 기업의 암이요, 거짓은 인생의 암입니다. 암은 사방이 다 입이라 마구잡이로 먹어치우지요. 결국은 자신도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히는 대로 먹어치워 자폭하는 것이 암입니다. 거짓도 그렇습니다. 거짓은 결국 거짓 때문에 망하고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

서 거짓을 날게 합니다. 산에서 굴린 눈덩이는 작지만 그것이 굴러 산 아래에 이르면 눈덩이가 집채만 한 것이 되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짓 때문에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계요, 전술인데 거기에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사울을 보십시오. 그가 아말렉 군대를 치고 전리품을 취해 돌아옵니다. 분명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사무엘이 왜 그랬느냐고 묻자 사울은 거짓말로 이를 돌려댁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

말렉 사람에게서 끌어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

나이다”(삼상15:15). 진실하지 못한 대가가 어땠습니까? 그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왕권도 박탈당했으며,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충신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 묘안을 짜내어 그를 죽이지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그를 질타하자 그는 돌려대지 않고 바로 사실대로, 진실되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죄의 대소를 따지자면 다윗의 죄가 더 클 수도 있으나, 진실된 자와 거짓된 자의 결과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는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된 자를 찾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처럼 오늘날도 온갖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진실되게 산다는 것은 솔직히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

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잠12:19),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히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잠12:22),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시15:1~2),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시32:2). 또한 이 세상을 이기려면, 이 세상을 잘 헤쳐가려면 지혜가 필수인데, 이 지혜도 진실할 때, 정직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잠2:7).

거짓은 어두움이고 진실은 빛이다

성경에는 ‘진실로’라는 말이 365번이나 나옵니다. 365일 매일 진실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진실은 참 진(眞)과 열매 실(實)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실한 자만이 성공의 열매, 기쁨과 행복의 열매를 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제사함이 없이 산다면(벧전2:22), 나다니엘처럼 간사함이 없이 산다면(요 1:47), 바울처럼 부정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살전2:3) 우리 삶에 결실이 넘쳐날 것입니다.

진실로 당신이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진실로 행복하길 원합니까? 진실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십시오. 할렐루야!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총회장 이초석 목사

틀림과 다름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고, 1948년 7월 17일에 최초로 만들어진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하였으니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는 70년에 불과한 짧은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뒤 경험 부족으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하여 나라를 이끌어갈 일군들을 뽑고, 의사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 조건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서로의 약점만을 들춰내어 물고 뜯으면 서까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상대방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구태의연한 행태는 민주주의의 큰 장애요인입니다. 올바른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다름’이 ‘틀림’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확실히 100%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일들은 민주주의에서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감성에 호소하는 선동적인 언어에 넘어가지 말고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하고 정해진 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출된 대표들에게 정해진 임기 동안에는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맡겨주고 결과가 나오도록 기다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비난하고 돌을 던져대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상이나 이념은 진리가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 물고 뜯으며 이진투구를 벌이는 모습은 사라져야 할 정치풍토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자신과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상대방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비민주적인 행동입니다. 정치인들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낙원이 되고 상대방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이미 경험해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호들갑을 떨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상이나 이념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때 묻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평강 가운데 감동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순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성숙해지고 더욱 더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유비무환(有備無患)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모두가 잠든 새벽, 북한은 기습적으로 38도선을 넘어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그 날은 주말이어서 남한 병력의 절반 이상이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며칠 전부터 북한 쪽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된다는 보고가 들어왔지만 수뇌부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비상경계 태세를 해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군이 38도선 쪽으로 병력과 무기들을 최전방 배치하면서 은밀하게 전쟁을 준비하는 동안, 남한은 주한미군도 철수한 상태에서 5월에 제2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전쟁 직전인 6월 19일에는 대한민국 제2대 국회가 활동을 시작하는 등, 전쟁에 대한 대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

다. 조 때 외세의 침략에 대비하여 10만 병사를 양성할 것을 주장했던 율곡 이이의 말을 왕과 대신들이 들었더라면, 임진왜란 때 조선이 왜구의 침입에 무방비 상태로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평안하고 안일할 때를 노립니다. 다윗은 한가로운 궁궐을 거닐 때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음행과 살인이라는 죄악 가운데 넘어졌습니다. 왜 사람들이 점점 죄악에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과 의욕을 잃어버릴까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방심하는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입니다. 환난의 때에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합시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마24:44).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나의 귀감, 사도 도마

사도 도마는 내 신앙의 여정에 귀감이 되는 분이다. 전승에 따르면 제자들 중에서도 굉장한 영성을 지닌 분이라고 전해진다. 그런 도마를 우린 다만 의심 많은 제자로 편취하고 만다. 그러나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도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 죽음과 고난 속에서 주님을 따르던, 죽음도 불사했을 도마는 혼자만 부활하신 모습을 보지 못한 제자들 중 왕따였다. 그 때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 실망감과 분노... 도마는 피눈물로 기도했다. 주님을 직접 만나 뵙기를. ‘내가 왜 너희들이 만난 주님을 건네 들어야 하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이 만난 예수님은 내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그 못자국을, 옆구리를 만져 보리라.’ 피눈물로 기도할 때 8월 만에 다시 임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당신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그의 집게손가락으

로 확인시켜주셨다. 천하 인류에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만져본 사람은 오직 도마뿐이다. 사랑하는 마리아조차 손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오직 도마만이 그 존귀한 육체를 만져본 것이다. 그래서 도마의 집게손가락을 인류 중에 가장 복된 집게손가락이라 한다. 그 귀한 은혜로 도마는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하며 달궜진 접시위에 태워지고 허리가 잘려 순교했다고 전해진다. 무슨 망설임이 있었으리요. 그 귀한 도마의 체험. 어찌 잊을 수 있으리요. 그 손가락의 감촉을.

나는 남이 만난 하나님의 간증을 은혜롭게 여기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면 의미를 크게 두지 않는다. 그래서 도마는 내 신앙의 여정에 귀감이 되고 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늘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나는 좋다.

이광주 전도사



어머니의 희생의 사랑

어미 우렁이는 수많은 천적들로부터 알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제 몸속에 알을 낳아 품는다. 몸 안의 새끼들은 어미의 살을 파먹으며 성장한다.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먹이로 주고 빈껍데기가 되어 조용히 물에 떠내려가며 생을 마친다. 살을 깎아 먹이는 어미의 희생은 마치 우리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으시며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보는 듯하다. 성경 속 탕자와 비슷한 사례다. 어머님을 말년에 형님 내외가 모셨는데,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자주 길을 잃어버리고 이상한 행동을 해서 형님과 형수가 무척 힘들어했다. 둘째 아들은 그 당시 사업이 잘되지 않아 결국 이혼하고 혼자 노숙자처럼 떠돌아다녔고 있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은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형수에게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둘째 아들이 온다는 말에 어머니는 들떠서 어쩔 줄 몰라 하셨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둘째 아들이 오지 않자 어머니 식사를 먼저 차려 드렸다. 그런데 어머니가 음식들을 몰래 주머니에 넣는 것이었다. 가족들이 어머님의 행동을 보고 놀라서 말렸지만, 맨손으로

뜨거운 찌개 속의 건더기들까지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고는 누가 빼앗기라도 할까봐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를 않았다. 밤이 되어서야 둘째 아들이 왔고, “어머니, 저 왔습니다.”라는 둘째 아들의 인사를 듣고서야 어머니는 방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주머니에서 온통 한데 뒤섞인 음식들을 둘째 아들에게 꺼내놓으며 말씀하신다. “아가, 배고프지? 식기 전에 어서 먹으렴.” 어머니의 손은 뜨거운 찌개를 주머니에 넣느라 여기저기 물집이 잡혀 있었다. 아들은 명치끝이 찌르듯 아파서 아무 말도 못 한 채 어머니를 안았다. 어머니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둘째 아들이 어려운 상황에 부딪쳐 있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고, 자식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서는 내 한 몸 부스러지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마치 우렁이 어미처럼.

오늘도 우리네 부모님은 자식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 아무리 바빠도 주자주 전화 드리고 찾아뵙자. 부모는 자식의 건강한 목소리와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하신다.

임택함 목사

cjcc1004@hanmail.net

장맛 좋은 집

옛 속담에 ‘장맛이 나쁘면 집안이 기운다’는 말이 있다. 장을 담그기 위해서는 메주를 담가 새끼줄로 엮어서 벽이나 천장에 걸어두는데, 그러면 집안의 온갖 미생물이 메주에 달라붙어 메주를 발효시킨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 가족 간에 다툼이 잦으면 그 다툼의 기운에 의해 메주 균이 죽고 결국 메주가 까맣게 되어 장맛이 고약해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다툼이 잦은 집에서는 장맛도 좋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영혼육의 건강은 말할 것도 없겠다. 성경에는 수많은 가정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언어사용을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이 담겨있다. 첫째, ‘공격의 언어’를 조심해야 한다. 욥

과 그의 아내를 보자. 하나님의 시험으로 어려움 가운데 놓인 욥에게 그의 아내는 위로는커녕 “당신은 아직도 어쩔 그렇게 고지식해요. 하나님을 욱하고 죽으라!”(욥 2:9)며 욥을 더욱 절망에 빠뜨리는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욥 부부가 함께 10명의 자녀를 낳았어도 계속되는 악재 앞에 서로 믿음의 본질이 달랐음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결국 아내는 떠나고 그녀의 공격은 욥이 잠시나마 하나님께 서운함을 표현하는데 일조를 했다. 둘째, ‘무시의 말’이다. 성경은 미같이 다윗을 심중에 업신여겼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법계 앞에서 열정적으로 춤을 춘 다윗을 향해 그녀는 “어찌나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놈들처럼 계집종한테 몸

이나 보여주고”(삼하6)라며 비아냥거리고 무시하는 말을 한다. 처음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는 로미오와 줄리엣 수준으로, 아버지로부터 다윗을 보호하기 위한 미갈의 노력은 눈물겨웠다. 하지만 공주출신인 미갈의 마음속 깊이에는 미친한 목동 출신인 다윗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다. 결국 그녀는 ‘무시의 말’ 한마디로 인해 자식이 없는 벌을 받았고 다윗과 관계도 완전히 깨져버렸다. 셋째, ‘질책의 말’이다. 성경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는 부부싸움도 가장 먼저였다. ‘뱀 중의 뱀요 살 중에 살’이라며 아내를 소중히 했던 아담은 선악과 범죄 이후 하나님께 책망 받을 두려움이 생기자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창2:12)라며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녀를 질책하는 웅졸한 모습을 보인다. 덕분에 창조 당시 영적, 정서적, 성적으로 완벽히 연합되었던 이 부부는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은 물론 부부 사이 단절이 시작되었다. 관계는 바른 언어에서부터 시작한다. 평소 고마움과 미안함, 사랑을 의식적으로 자주 표현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어려움에 놓였을 때 서로를 공격, 무시, 질책하는 말은 삼가야 한다. 그리할 때 가정을 파괴하려는 사단의 계획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을 함께 이뤄내는 천국가정이 만들어질 것이다. 하인명 renming@daum.net

:: 참된 깨달음 ::

에디슨의 교훈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네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두 사람 다 옳습니다. 왜냐면 그가 생각한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일단 잘 될 것이라고 낙관하면 그 낙관론과 열정이 성공을 안겨다 줍니다. 일시적으로 뼈적거리더라도 더 잘 되기 위한 진통으로 받아들이고 더 잘 될 결과를 생

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인이 될 때까지 “아니, 넌 할 수 없어.” 라는 말을 평균 15만 번을 듣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래, 넌 할 수 있어.” 라는 말은 약 5,000번 들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부정과 긍정의 비율이 무려 30:1이 됩니다. 이런 까닭에 “난 할 수 없어.” 라는 부정의식이 마음속에 더 강하게 자리 잡게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까요? 리더들은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나는 못한다, 나는 재능이 없다, 내가 해봐야 안 된다’는 내부적 두려움부터 가장 먼저 극복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수백 수천가지의 발명품들이 있습니다. 1,093개의 특허권을 가진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Thomas A. Edison)의 실험실은 1914년 12월, 화재로 전소되어 67세의 나이에 이루어놓은 그간의 모든 노고들이 화염 속에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에디슨은 폐허를 바라보며 “재앙도 가치가 있구먼! 내 모든 실패들이 날아가 버렸으니...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며 다시 벌떡 일어나 화재 3주 만에 그의 첫 번째 축음기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운명이란 외부에서 오는 것 같지

만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의 약한 마음, 게으른 마음, 부정적 버릇 등 내부적인 것에서 비롯되므로 용기 있게 대처해나가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당신은 해내지 못할 거라고 한 일을 해내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한 번에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창피를 당해도, 스스로에게 부끄러워도 괜찮습니다. 그건 고마운 일입니다. 그것을 알고 배울 수 있어 삶의 더 좋은 지점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당뇨병 환자의 신발

당뇨병 환자에 있어 신발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뇨병은 혈액순환 장애와 신경손상으로 인해 발의 감각이 떨어지고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쉽게 상처를 입는다. 하지만 발에 감각이 없어 통증을 느끼지 못하므로 상처 부위는 쉽게 감염이 되고 면역성 저하로 치료는 어렵게 되며 심지어는 절단으로까지 이르게 된다. 따라서 발의 보호가 우선적이며 신발이 그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당뇨인의 15~20%가 발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올바른 신발 고르기로부터 시작된다. 다음은 당뇨병 환자가 구두를 신어야 할 경우 좋은 구두 고르는 방법이다. 1. 앞부분이 넓고 높은 형태의 구두: 구두와 발가락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발가락의 상처를 예방해줘야 한다. 구두의 앞부분이 넓고 높은 형태로 제작해 신는다. 2. 발바닥 전체에 압력이 골고루 분포할 수 있는 구두: 발바닥에 가해지는 체중의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충격 흡수력이 뛰어나야 하며 발바닥 전체에 압력이 골고루 분산되도록 한다. 3. 구두창이 둥글고 높은 구두: 통증에 가장 민감한 부분인 발등과 볼 부위의 압력이 감소하도록 구두창이 둥글고 높아

야 한다. 4. 외부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구두: 외피와 내피 사이에 부드러운 스펀지 등을 사용해 외부에서 충격이 오더라도 발을 보호해야 한다. 5. 안전한 보행을 도와주는 구두: 당뇨병 환자의 경우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발의 균형을 잡아주어 변형을 막고 불균형한 보행이 되지 않도록 하여 통증 해소와 부상을 방지해야 한다. 6. 가볍고 미끄럼 방지 밑창이 있는 구두: 당뇨병 환자의 신발은 가죽이 부드럽고 발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하여 아주 가벼워야 한다. 또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밑창을 사용해 낙상 등의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당뇨병 환자라고 모두 특별한 신발이나 깔창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볼이 넓고 쿠션이 좋은 운동화면 된다. 발바닥에 굳은살이나 압력이 모이는 부위가 있으면 깔창만 맞추어도 많은 도움을 받는다. 변형이 심한 발이나 발가락 한두 개를 잃었을 경우에는 맞춤 신발이 필요하게 되는데 의사와 상담 후 좋은 제작사를 통해 맞추어야 한다.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

♣ 인간은 아는 것만큼 대접받고 자유롭다
Humans are treated and have freedom according to their knowledge.
人知多少,就能得多少待遇,并且得以自由。

♣ 그래서 배워야 한다
That is the reason why we must learn diligently.
所以要学习。

민들레

가냘픈 당신을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부드러움뿐이주려
당신의 수수한 색채는
높은 가을 하늘의 날개가 되고
남모르게 흘린 당신의 눈물은
온 세상을 사랑으로 수놓았소
행여 누군가의 입김으로 당신의 자태가
산산이 부서진다면 하염도
나는 아오
당신은 당신의 부서짐을 슬퍼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더면 세상에 당신의 몸을 던져
가득 채우려는 것을...

朋友